

성장·가계부채 '딜레마'...내년 경제성장을 하향 전망

한은, 기준금리 3.50% '7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고정했다.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지난 30일까지 일곱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내년 성장을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춘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구조적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더딘 소비 회복세 2.2%→2.1%

"가계부채 증가 추이·대외 여건 불확실성 커...긴축 기조 유지"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구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에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 2.1%로 높아지겠지만,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

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꺾였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할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준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뒷걸음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2020년 4월(-

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미워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점,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돼 당장은 물가 여건이 크게 나쁘지 않은 점도 한은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이나 급증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3000억원 뛰었다. 11월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27억8000만달러, 10월 말 원·달러 환율(1,350.5원)을 기준으로 약 3조7544억원 순유출됐다. 한국 주

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8월(-17억달러)과 9월(-14억3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순유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까지 아직 남아 있어 선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한은 역시 이날 '높아진 비용 압력'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4%에서 2.6%로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은의 고민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한은은 미국 인하를 확인한 뒤 7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만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 미국의 인하가 5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노조, 멕시코·쿠바 한인동포 후손에 후원금

광주학생독립운동 헌신 보답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멕시코·쿠바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후손을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향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관장, 김재기 전남대 교수, 류혜경 전남여중고 총동창회장(서광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905년 멕시코·쿠바에 정착했던 한인동포 1세대가 타국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후원했던 헌신에 보답하고, 한인동포 후손들이 고국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복 보내기 후원에 참여했다.

한복 보내기 운동은 광주은행 등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협동해 만든 한복 300여벌을 독립운동을 지지·후원한 멕시코 메리다 한인후손회, 쿠바 호세마르티 한인후손회에 전달하는 행사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 재정과 독립운동 활성화에 기여



한 한인동포 후손들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승진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이 지난 30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박 부회장은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의 장남으로 금호가(家) 3세대. 2002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후 금호타이어 부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 등을 거쳤다. 2018년 9월 아시아나HDT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2021년 금호건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호건설은 이날 박 부회장의 승진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조완석 부사장을 선임하는 등 2024년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의 '제8기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지난 30일 '제8기 광주 고용전문가 아카데미' 제6차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주고용전문가아카데미'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용·노동 시장 현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이론학습과 사례공유로 고용서비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일자리지표 통계분석 ▲고용안 전망 제도 현황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일자리 변화 ▲국내외 반도체·AI 산업 동향 ▲채용 트렌

드 분석 등 다양한 경제·고용 현안을 주제로 구성했다. 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세미나를 추진해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 사업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부산시 일자리 사업 현황 강의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미스매치 등 지방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교육 커리큘럼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여 수강생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현판식

효진팜, 광주·전남북 유일 수상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지난 30일 농업회사법인 효진팜(주)에서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은, 전국 농협은행 거래 농식품기업 중 경영성과와 국산 농축산물 활용,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부문을 심사해 선정된다.

수상 기업에는 대출금리 우대, 농식품기업 컨설팅,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효진팜(주)는 지난달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9곳의 수상기업 중

광주·전남북 소재 유일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재현 본부장은 "전남 우수 농식품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전남 농업·농촌과 우수 농식품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양모를 집안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양모 카페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7일까지 프리미엄 양모 카페트 특집 행사를 진행한다. 카페트와 러그 등 제품을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농협, 수능 마친 고3 금융교육 실시

12월 14일까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광주 시교육청과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금융교육은 지난 21일 동임미래과학고를 시작으로

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총 10개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고등학교 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금융상식'을 주제로, 신용과 부채의 개념, 신용점수제 및 금융사기 예방법과 저축과 투자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올해에만 총 165회에 걸쳐 4273여명의 학생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금융지식을 쌓는다면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에 지속적으로 앞장서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5.29(+15.48)
↑ 코스닥	831.68(+9.24)
↑ 금리(국고채 3년)	3.583(+0.029)
↑ 환율(USD)	1290.00(+0.40)